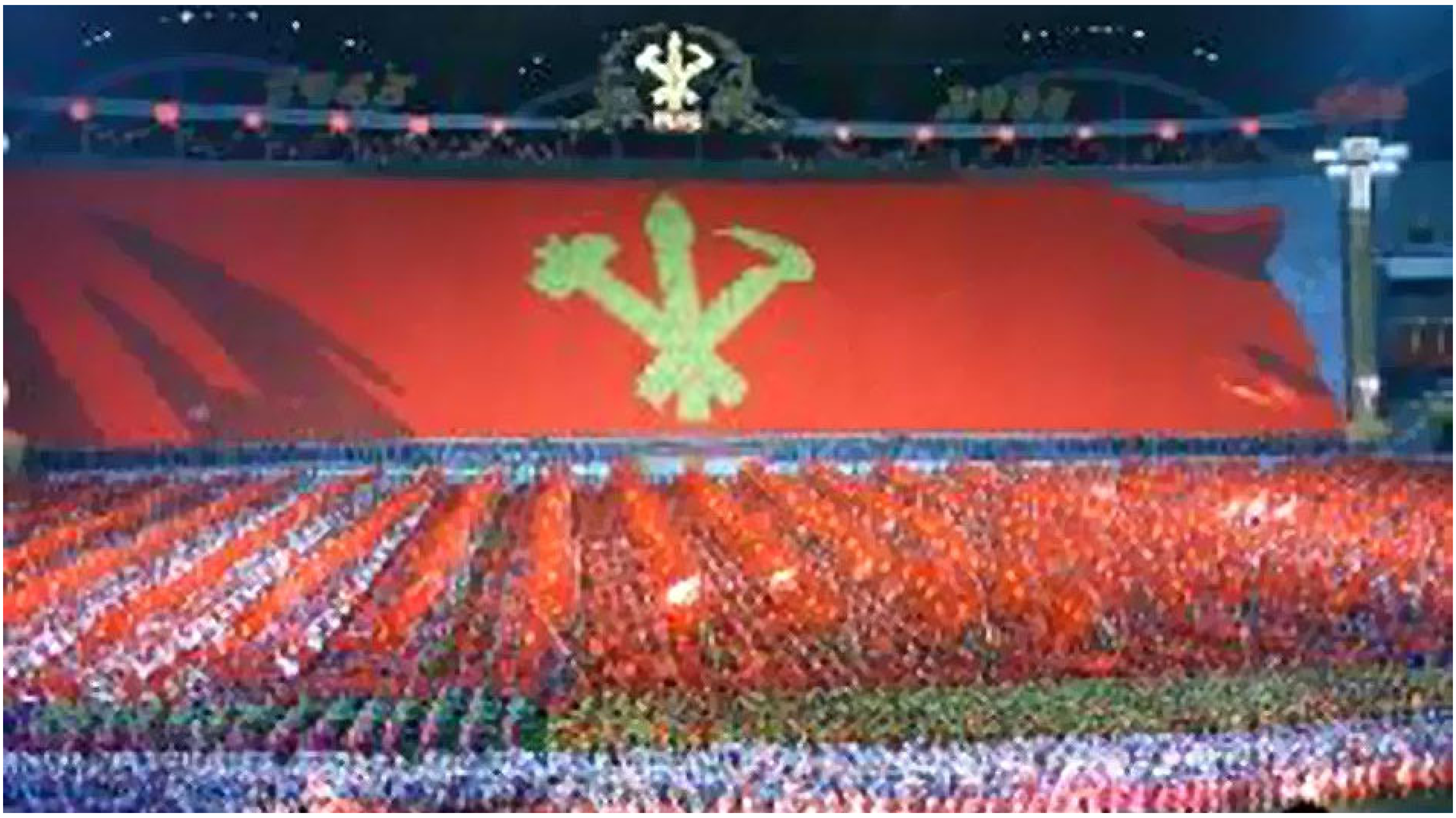
백두산2

경애하는 김일성주석님 탄신 90돌 특집

주체91(2002)년 4월 18일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다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새형의 로동계급의 당으로 창건되였으며 반세기에 걸치는 투쟁의 불길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로숙한 혁명적당으로,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수행의 빛나는 새 력사를 창조하여 왔으며 이 길에서 불멸의 위대한 업적을 쌓아 올렸다.

조선로동당의 력사는 곧 경애하는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활동력사이다. 우리 당이 걸어 온 시련에 찬 투쟁의 길에도 영광에 넘친 승리의 길에도 **김일성**동지의 거룩한 자욱이 새겨져 있으며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도 우리 당이 지닌 불패의 위력과 높은 권위도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결부되여 있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이며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존함과 업적으로 하여 우리 당의 50년 력사가 빛나는것이다. **김일성**동지의 존함과 업적은 우리 당의 력사와 더불어 영원불멸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자주시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그 빛나는 모범을 창조한 영광스러운 당이다.≫

≪당창건위업을 독창적으로 빛나게 실현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건설사업을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우리 당을 위대한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우리 당건설의 력사는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리론을 빛나게 구현하여 온 력사이다. 우리 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여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여 온 주체의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활동의 첫 시기부터 자주성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개척하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를 세우고 자주성을 견지할데 대한 문제를 근본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그것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이끌어 주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로선은 주체의 원칙, 자주성의 정신으로 일관된 혁명적인 자주로선이며 우리 당은 이 로선을 견결히 고수하고 철저히 관철하였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드높지 않는 혁명적신념과 강철의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 난관과 시련에 찬 우리 혁명을 곧바른 승리의 길로 령도하여 오신 위대한 공산주의혁명가이시였으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혁명적원칙을 고수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원칙성과 령활성을 가장 능숙하게 결합시키는 령도예술의 빛나는 모범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이끌어 주시였다.≫

≪당건설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위대한 업적과 귀중한 경험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과 혁명적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며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사상과 리론, 혁명적령도방법을 옹호고수하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김일성**동지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고 몸소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신대로 하며 모든것을 **김일성**동지식으로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을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길이며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 나가는 길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우리 당의 유일한 지도사상이며 우리 당과 혁명의 승리의 기치이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떠나서 **김일성**동지의 당에 대하여 말할수 없으며 당의 위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하여 놓으신 우리 당의 통일단결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더욱 튼튼히 다져 나가야 한다.≫

≪오늘우리 당과인민은새로운 력사적진군길에 들어섰다. 우리 당은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 나갈것이며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할것이다. 조선로동당은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날것이다.≫

조선노동당 창건은 불멸의 역사적 공적

창당위업의 성공을 담보하는 향도적 지침 제시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노동자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원리와 원칙, 그 실현방도를 새롭게 명시하시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이론을 전면적으로 체계화하셨다. 이것은 노동자계급의 창당위업을 사소한 편차나 편향도 없이 성공적으로 완성할 수 있는 위력한 사상이론적 무기를 마련하고 향도적 지침을 제시한 불멸의 역사적 공적으로 된다.

특히 주석께서 일찍이 항일혁명투쟁의 첫 시기에 천명하신 창당의 3대필수요건에 관한 탁월한 사상은 한민전 성원들이 언제나 가슴깊이 새기고 실천에 구현해야 할 활동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1930년 여름 만주의 카륜에서 첫 당조직을 결성하시던 나날을 감회깊이 회억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시였다.

≪지도사상, 영도핵심, 군중지반, 이것은 당조직을 내오는 데서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 명제에는 노동자계급의 창당위업은 당의 지도사상을 마련하고 조직적 골간을 이룰 영도핵심을 육성하며 대중적 지반을 축성한 토대위에서 수행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심오한 사상이 밝혀져 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계급의 전위당건설은 그 조직사상적 기초를 튼튼히 쌓는 준비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필연적이고 합법칙적이며 가장 현실적이고 당위적이라는 사상과 여기에 창당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는 근본비결이 있다는 사상이 함축되어 있다.

과학적인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것은 창당위업수행에서 언제나 일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적 과제로 제기된다. 그것은 당의 지도사상에 의해 당의 성격과 투쟁목적이 규정되고 당건설과 당활동의 기본방향이 규제되기 때문이다. 당의 조직력, 영도력과 위력도 지도사상에 의해 좌우되게 된다.

노동자계급의 당은 올바른 지도사상에 기초해 당건설과 활동을 벌여나가야 당대오의 사상적 통일과 조직적 단결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다. 또한 당이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변혁운동을 방향상실이나 궤도이탈이 없이 오직 승리의 한 길로 견인해 가려고 해도 과학적인 지도사상에 기초하여 전략전술적 지도를 바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올바른 지도사상의 향도를 받지 못하는 운동은 나침반없는 배와 같이 향방을 잃고 방황하기 마련이다.

결국 당의 지도사상은 당건설과 활동의 출발점이고 당의 조직사상적 공고화의 기초이며 변혁운동의 승리를 담보하는 영도의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다.

영도핵심을 육성하고 그를 골간으로 당조직을 결성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창당위업의 성공을 위한 선결여건이며 필수적 요구이다.

영도핵심은 당의 골간역량이며 지휘성원이다. 노동자계급의 전위당은 실천투쟁 속에서 단련되고 세련된 견실한 전위투사들을 핵심으로 하여 조직되며 그들의 역할에 의해 당의 모든 활동이 보장된다.

당의 지도사상을 정립하고 영도핵심을 키우는 작업을 선행시킨 토대위에서 영도핵심을 골간으로 하여 당조직을 결성할 때 노동자계급의 당은 하나의 사상에 기초하여 한결같이 움직이는 순결한 사상적 통일체, 공고한 조직적 전일체가 될 수 있다. 또한 영도핵심을 끊임없이 늘리고 그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나가 열, 열이 백, 백이 천이 되는 식으로 각계각층 민중을 각성시켜 당주위에 굳게 결집할 수 있으며 당의 군중적 지반도 튼튼히 다져나갈 수 있다.

군중지반을 다진 토대위에서 당조직을 내오며 군중지반을 끊임없이 넓히고 공고히 하는 것은 당의 존망, 변혁운동의 성패와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당과 대중과의 혈연적 연계를 긴밀히 하고 통일단결을 실현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당건설의 근본요구이며 당과 변혁운동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결정적 담보이다. 노동자계급의 당은 광범위한 민중 속에 깊이 뿌리박고 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룰 때 불패의 위력을 지닐 수 있고 대중의 무궁무진한 힘에 의거해 변혁운동을 성공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독창적으로 천명하신 창당의 3대필수요건에 관한 사상은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근로대중의 근본이익과 지향에도 부합되고 자주시대의 요구와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에도 걸맞게 창당위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유일하게 올바른 길을 명시한 탁월한 사상이며 당건설과 활동에서 일관하게 견지하고 실천해야 할 지도적 지침이다.

≪ㅌ.ㄷ≫로부터 조선노동당의 창당에 이르기까지

김일성주석님께서는 일찍이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기성의 이론과 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당의 지도사상을 마련하는 일로부터 당건설과 당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독창적으로 해결하셨다.

경애하는 주석에 의한 주체의 당건설위업은 1926년 10월 ≪타도제국주의동맹(ㅌ.ㄷ)≫의 결성으로부터 시발되였다.

그것은 ≪ㅌ.ㄷ≫의 강령이 조선노동당강령의 기초가 되고 ≪ㅌ.ㄷ≫가 내세운 자주성의 원칙이 주체의 당건설과 활동의 일관한 원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ㅌ.ㄷ≫가 자라나 반제청년동맹, 공청으로 자라나고 ≪ㅌ.ㄷ≫와 반제청년동맹, 공청을 통해 키워낸 견실한 지도핵심들이 새 형의 당조직건설의 조직적 골간을 이루었으며 그들이 공력을 들여 쟁취한 광범위한 민중이 당의 공고한 군중적 지반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주체의 당건설위업수행에서 1930년 6월에 소집된 카륜회의는 하나의 큰 봉우리를 이룬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이 회의에서 발표하신 명저 ≪조선혁명의 진로≫에서 처음으로 주체사상의 원리를 천명하시고 주체적인 창당방침을 제시하셨다. 그것이 바로 종전의 당과 구별되는 새형의 당, 주체의 당창건의 사상적 기초로, 활동지침으로 되었던 것이다.

경애하는 주석께서는 이렇듯 지도사상과 영도핵심, 군중적 지반을 다 갖춘 토대위에서 1930년 7월3일 주체형의 첫 당조직 ≪건설동지사≫를 결성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모체로 하여 국내와 만주 각지에 수많은 기층당조직들을 내오고 확대강화하시였다. 참으로 ≪건설동지사≫는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주체형의 첫 당조직이였고 조선노동당의 태아였다.

주석에 의한 주체의 당건설위업은 항일대전의 도도한 흐름을 타고 더욱 줄기차게 진척되었으며 그것은 마침내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의 출범이라는 자랑찬 결실로 이어졌다.

경애하는 **김일성**주석께서 조국을 광복하시고 개선하신 후 한달도 채 안되는 사이에 창당위업을 수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일찍이 주체사상에 기초한 독창적인 당건설사상과 이론을 명시하시고 항일혁명의 장구한 나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성과와 풍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구국전선 주체89, 10월 1일

김정일영수와 조선노동당

조선노동당은 오늘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 세련되고 노숙한 당, 일사불란하고 정열에 넘치는 당, 전도가 양양하고 미래가 밝은 주체형의 당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당의 위대성은 곧 영도자의 위대성이다. 영도자가 위대하면 당도 위대한 것이다. 오늘 조선노동당이 국제사회에서 지닌 절대적 권위는 바로 현대의 가장 걸출한 사상이론가이시며 위대한 정치가이신 **김정일**영수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데서 지니게 된 것이다.

조선노동당 창건 55돌을 맞으며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특출한 공헌을 하신 **김정일**영수의 업적중에서 몇가지 살펴본다.

주체의 당으로

조선노동당은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는 노동자계급의 새형의 당이다.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여 건설되고 강화발전되어온데 조선노동당의 근본특징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께서는 일찍이 당중앙위원회에서 당무를 시작하신 첫 시기부터 조선노동당이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자기 고유의 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가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철두철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진행하도록 하셨다. 그분께서는 특히 전당의 주체사상화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영도하시는 과정을 통해 조선노동당을 주체형의 혁명적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그리하여 조선노동당은 남들이 풍파와 곡절을 겪을 때에도 동요없이 주체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치켜들고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고수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갈 수 있게 되었다.

당이 자기의 고유한 성격을 고수하는 것은 당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대한 문제이다. 당의 성격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당은 본연의 모습을 잃게 되고 이색적인 당으로 변질되게 되며 그렇게 되면 영도적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봐도 그렇고 더욱이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집권당들에서 변질이 일어나 결국 당의 붕괴와 사회주의위업의 좌절이라는 가슴아픈 결과를 자초한 역사적 교훈에 비춰보면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공헌하신 **김정일**영수의 불멸의 업적이 갖는 중대한 의미가 더욱 부각된다.

수령의 당으로

조선노동당을 영원히 주체형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은 당을 곧 수령의 당, **김일성**주석의 당으로 만드는 과정이였다.

김정일영수께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의 운명개척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대한 주체적 해명에 기초하여 수령중심의 당건설사상을 천명하시고 그것을 빛나게 실현하셨다.

사회주의제도수립후 당을 어떤 모습으로 건설하느냐 하는 문제는 노동자계급의 당건설위업에서 해명을 기다리는 초미의 문제였지만 기존이론에는 이에 대한 해답이 주어져있지 않다. 마르크스-레닌주의창시자들은 당을 계급투쟁의 무기로, 계급의 폐절과 함께 조락하는 것으로 보았던만큼 사회주의체제확립이후의 당건설문제에 대해서는 제기할 수 없었다. 더욱이 민중의 운명개척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문제를 정확히 해명하지 못한 그들로서는 당건설의 총적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수령중심의 관점에서 밝힐 수 없었다.

노동자계급의 당을 전망성있게 건설할 총적 목표와 그 실현방도를 처음으로 명철하게 밝히신 분도, 조선노동당을 그 창건자이신 **김일성**수령님의 사상의지대로 전당이 숨쉬고 움직이는 강위력한 당으로 만드시어 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참다운 본보기를 창조하신 분도 영명하신 **김정일**영수이시다.

원래 노동자계급의 당은 수령에 의해 창건되고 지도되며 수령의 사상과 영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이다.

조선노동당을 노동자계급의 당이 출현하고 발전하는 합법칙성에도 부합되고 당의 근본사명에도 걸맞는 수령의 당으로 건설하신 **김정일**영수의 역사적 공적이야말로 노동자계급의 당건설위업에 대한 특출한 공헌이라 할 것이다.

조선노동당에 있어서 **김일성**수령님은 곧 **김정일**영수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조선노동당은 **김일성**수령님의 당이자 **김정일**영수의 당이라 할 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을 당의 영원한 수령으로, 영명하신 **김정일**영수를 당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 영도를 받는데 조선노동당의 위대성이 있고 필승불패의 위력의 원천이 있다.

어머니당으로

이북민중은 신뢰와 존경을 담아 조선노동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고 있다.

정당이 출현하고 정당정치가 시작된 때로부터 수백년이 흐르고 그동안 수많은 당들이 출몰했지만 민중들로부터 어머니라는 친근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당은 조선노동당밖에 없다.

어머니당이라 함은 당이 민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고 이끌어주는 참다운 민중의 당으로 된다는 것을 말한다.

당이 민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나가는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김정일**영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시는 조선노동당활동의 원칙이다.

그분께서는 노동자계급의 당은 민중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변혁운동의 요구에서 출현하였다는 데로부터 민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것을 당의 근본사명으로, 민중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것을 조선노동당의 고유한 활동원칙으로 규정하셨다. 그분께서는 조선노동당이 어머니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 언제나 광범위한 민중의 의사와 요구에 부합되게 노선과 정책을 세우고 그것을 민중의 이익에 걸맞게 관철해 나가도록 하신다. 그리고 민중에 대한 당의 사랑과 믿음이 모든 사람들의 사회정치생활과 물질문화생활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데서 표현되도록 하신다. 그분께서는 특히 어머니당이라는 것은 당일꾼들이 대중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시면서 당간부들을 민중에 대한 헌신적 봉사정신으로 교양하고 민중의 심부름꾼으로 키우는데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계신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것이 **김정일**영수께서 조선노동당과 간부들앞에 제시하신 엄숙한 슬로건이며 어길 수 없는 활동준칙이다. 민중에 대한 조선노동당의 헌신적 봉사정신과 민중적 시책들 특히는 개별적인 가정과 사람들에게까지 골고루 뜨겁게 미치는 **김정일**영수의 사랑과 믿음의 인덕정치, 광폭정치는 당에 대한 민중의 절대적인 신뢰를 낳고 당과 대중을 끊을 수 없는 하나의 혈맥으로 굳게 이어놓았다.

필승불패의 당으로

영명하신 **김정일**영수께서 조선노동당을 주체의 당, 수령의 당, 어머니당으로 만드신 과정은 당을 수령을 중심으로 일심단결된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온 나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당의 불패성과 위력의 원천은 대오의 통일단결에 있다. 통일단결을 떠나서는 당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강화될 수도 없으며 민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갈 수 없다.

당의 통일단결가운데서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단결은 일심단결이다. 조선노동당의 통일단결은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당이 **김정일**영수의 주위에 철옹성같이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다. 지구촌에는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당들이 있지만 일심단결이라는 가장 공고하고 위력한 단결을 이루어낸 필승불패의 당은 조선노동당뿐이다.

경애하는 **김정일**영수께서는 일찍이 사상최초로 노동자계급의 당은 수령의 사상에 기초하고 수령을 유일중심으로 단결할 때 가장 공고한 일심단결을 이룰 수 있다는 단결의 원리를 발견하시고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는 슬로건을 제시하셨으며 조선노동당을 영도하시는 30여년간의

정력적인 활동을 통해 이 슬로건을 빛나게 실현하셨다.

위대한 **김정일**영수를 유일중심으로 전당이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굳게 결합된 일심단결의 대오를 이루고 있는 여기에 조선노동당의 참모습이 있고 그 필승불패의 위력이 있다. 조선노동당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고립압살책동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성공적으로 분쇄하고 승리만을 기록하고 있으며 사회주의강성대국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건설하고 있다.

조선노동당을 일심단결된 필승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킨 역사적 공적이야말로 주체의 당건설위업에 공헌하신 **김정일**영수의 업적중의 업적이라 할 수 있다.

* * *

조선노동당은 가장 공고한 기초와 독특한 발전역사를 가지고 거창한 업적을 이룩한 위대한 당으로, 오랜 기간의 준엄한 투쟁 속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은 세련되고 단련된 노숙한 당으로 국제사회에서 그 신뢰도가 매우 높다.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공산당,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적 정당, 단체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조선노동당창건 55돌 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성대히 거행하고 있다. 이것은 민족, 민중의 자주위업과 인류의 자주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한 조선노동당의 역사적 공적에 대한 높은 평가이고 찬사인 것이다. 일국의 창당기념일이 이렇게 세계적 판도에서 인류공동의 축제로 성대히 경축된 적은 일찍이 없었다.

조선노동당은 자주시대의 향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사소한 오류나 실수도 없이 민중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영도하는 실천적 모범으로 인류의 자주위업을 진두에서 선도해나가고 있다.

민중의 자주위업의 향도자, 세계자주위업의 선도자로서 만민의 다함없는 신뢰와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는 조선노동당에 영광을 드린다.

구국전선 주체89, 10월 1일